

---

##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

정 윤 성

어느 날, 친구가 하교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서 나에게 물었다.

“야, 어제 SNS에서 유명한 한심 좌 흑형 봤어?”

“한심 좌는 아는데 흑형이 무슨 뜻인데?”

친구가 말하는 흑형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 수 없는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흑인을 부를 때 사용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다른 친구가 저녁때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축구 중계를 보며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저기서 흑인 미드필더 선수가 공을 잡았다. 그러고는 혼자서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 수비수에게 빼앗긴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한 마디가 툭 튀어나왔다.

“아, 저 흑형 너무 개인플레이야. 왼쪽에 다른 선수 비었었는데 말이야.”

친구도 공감했는지 맞장구를 쳐주며 그 흑인 선수 플레이에 대해 비판했다. 그 흑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꺼낸 말을 맞지만 정확한 뜻도 모르는 흑형이라는 단어를 실수로 써버린 것이다. 그 이후 내 마음속이 정체불명의 물체로 딱 막힌 기분이었다.

아마도 내가 사용한 ‘단어’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 싶어서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서 검색 포털 사이트에 정확하게 ‘흑형’이라고 검색했고, 한 기사문을 보게 되었다. 방송인 조나단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흑인들을 ‘흑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인이 한국인들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 내용이었다. 사실은 조센징과 흑형은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쁜 의도 없이 만든 말인데 점차 인종차별적 의미나 어조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면서 인종차별 언어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내용을 접한 나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다. 분명 같은 사람이고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를 뿐 다 같은 사람이고 존중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들은 피부가 검게 태어나고 싶어서 검게 태어난 것일까?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색과 달라서, 태어나고 자란 국적이 달라서, 쓰는 언어가 달라서 등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며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준다.

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작다. 내가 키가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작게 태어난 것도 아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성별도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성이 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 대해 만족하고 사랑한다. 가끔은 ‘나는 왜 작게 태어나서 차별받고, 놀림을 받아야 할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생기는 장점도 있고 이러한 신체 조건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이 있을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정운성’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신장, 성별, 국적, 언어 등은 틀리지 않았다. 다른 것이다. 다만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길 가다 마주치는 외국인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쳤지만, 이제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그들이 피부색, 성별, 국적, 언어 등으로 인해서 겪을 아픔과 차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